|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6_05

ARS+CATI

제43차 ARS조사

제28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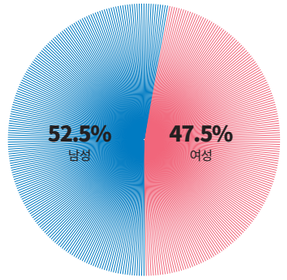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2.4% [총 통화시도 41,981명]
조사기간	2023년 6월23일 ~ 6월 2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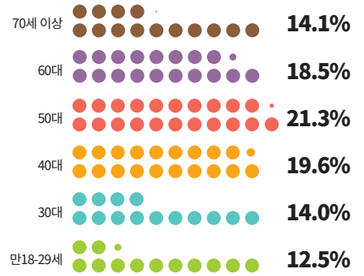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성별	남성	525	52.5	498	49.8	0.95
	여성	475	47.5	502	50.2	1.06
연령	만18-29세	125	12.5	164	16.4	1.31
	30대	140	14.0	151	15.1	1.08
	40대	196	19.6	180	18.0	0.92
	50대	213	21.3	195	19.5	0.92
	60대	185	18.5	170	17.0	0.92
	70세 이상	141	14.1	140	14.0	0.99
지역	서울	196	19.6	188	18.8	0.96
	인천·경기	305	30.5	317	31.7	1.04
	대전·세종·충청	112	11.2	106	10.6	0.95
	광주·전라	102	10.2	97	9.7	0.95
	대구·경북	98	9.8	98	9.8	1.00
	부산·울산·경남	143	14.3	150	15.0	1.05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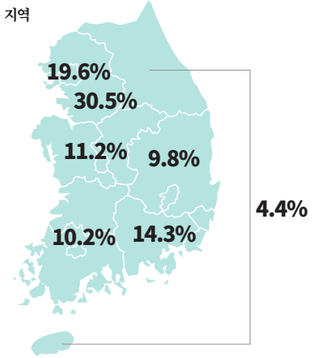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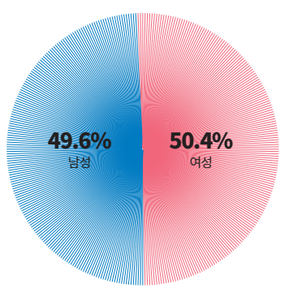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 답 률	15.6% [총 통화시도 6,506명]
조사기간	2023년 6월23일 ~ 6월 24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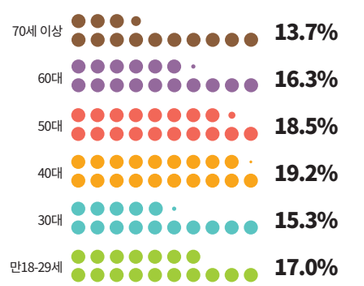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성별	남성	504	49.6	505	49.7	1.00
	여성	513	50.4	512	50.3	1.00
연령	만18-29세	173	17.0	167	16.4	0.97
	30대	156	15.3	151	14.8	0.97
	40대	195	19.2	184	18.1	0.94
	50대	188	18.5	199	19.6	1.06
	60대	166	16.3	173	17.0	1.04
	70세 이상	139	13.7	143	14.1	1.03
지역	서울	194	19.1	191	18.8	0.98
	인천·경기	323	31.8	324	31.9	1.00
	대전·세종·충청	108	10.6	107	10.5	0.99
	광주·전라	105	10.3	99	9.7	0.94
	대구·경북	96	9.4	99	9.7	1.03
	부산·울산·경남	149	14.7	152	14.9	1.02
	강원·제주	42	4.1	45	4.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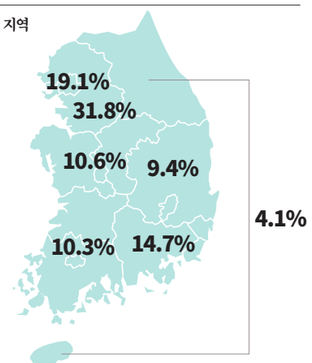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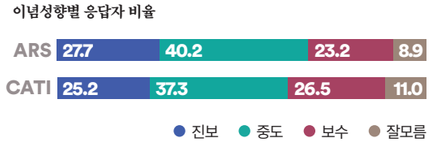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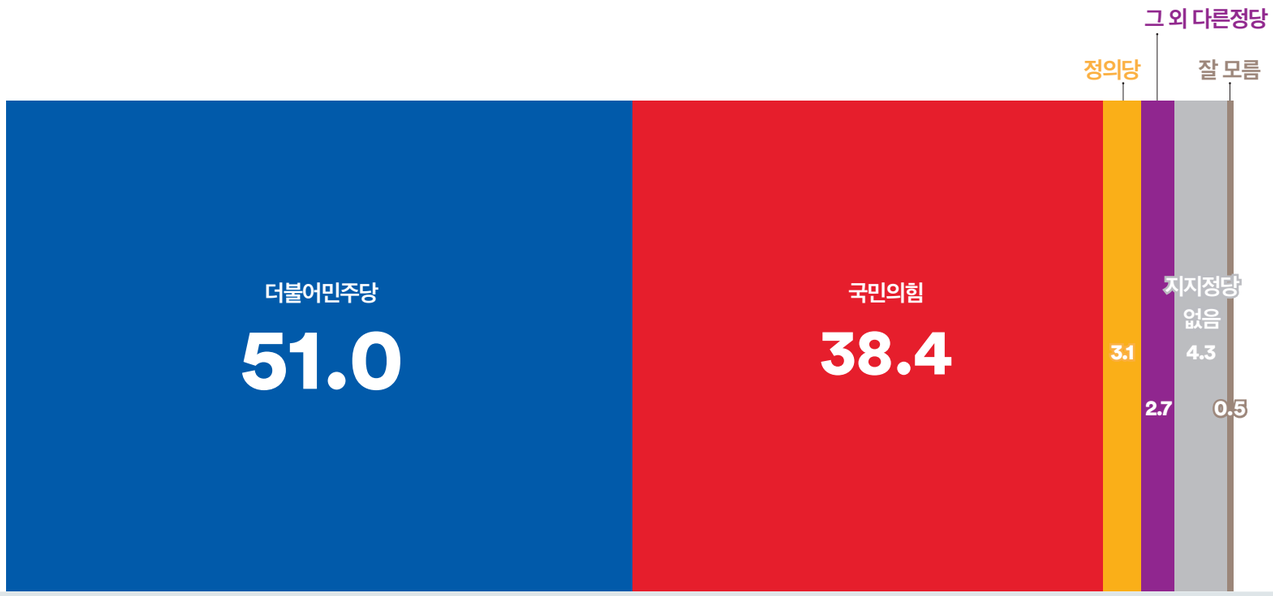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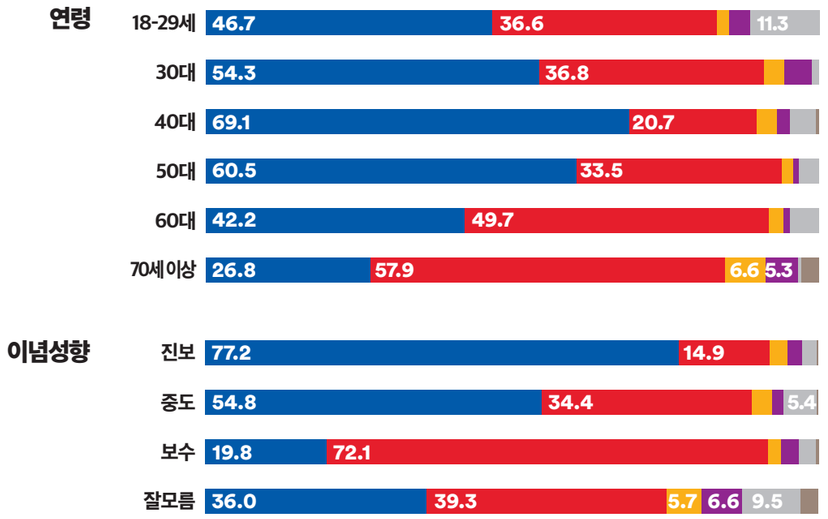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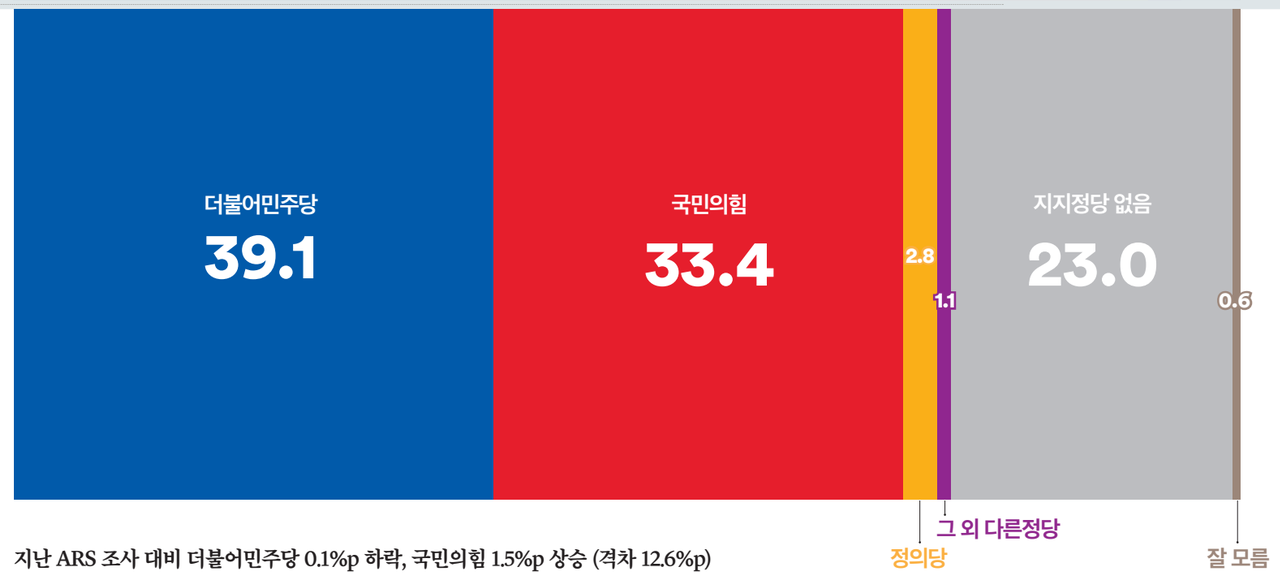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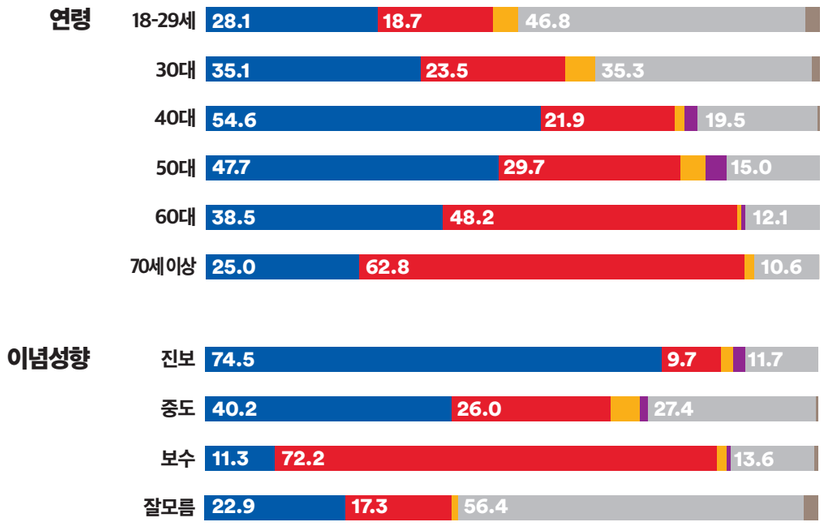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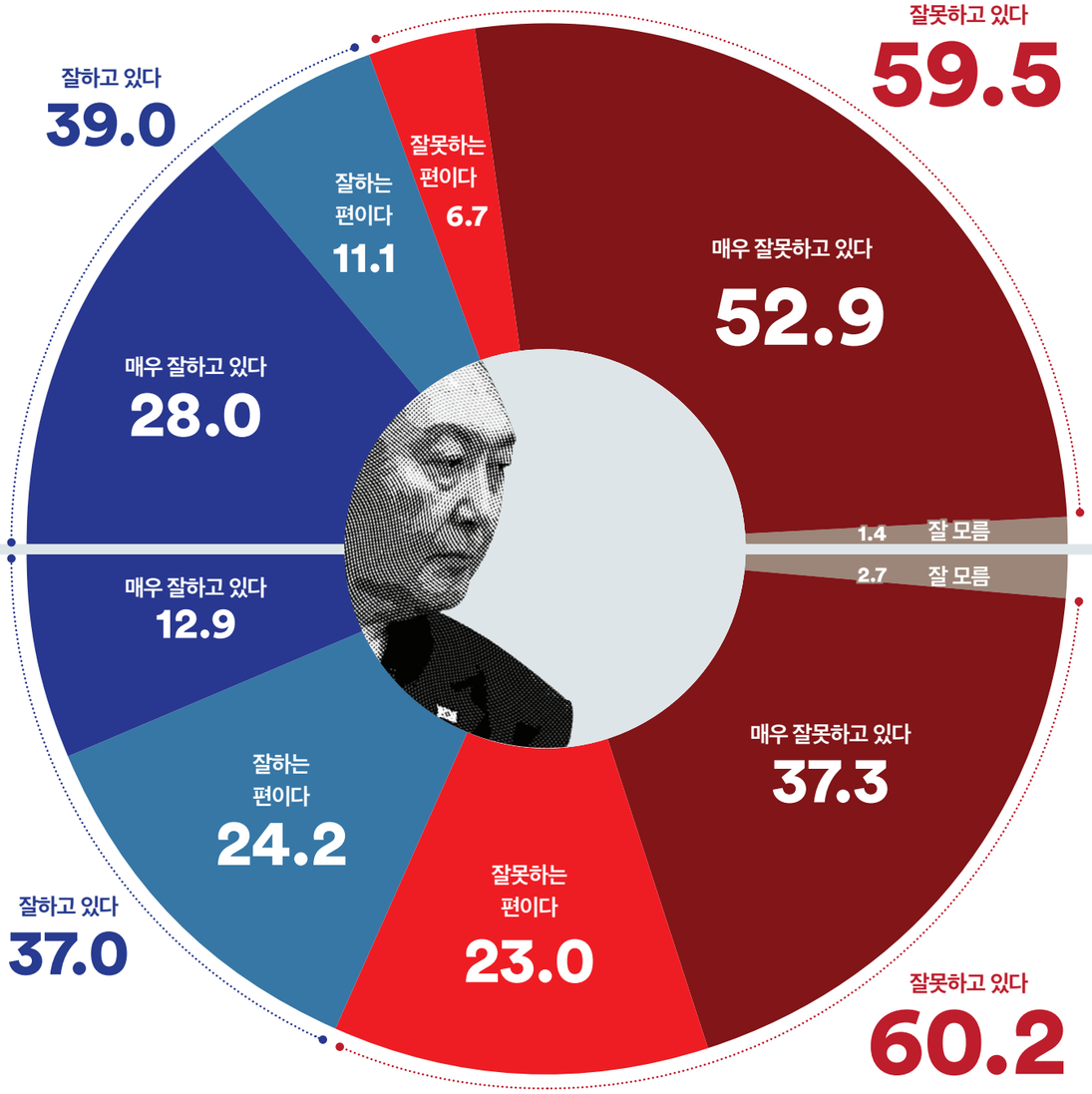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1%p 하락, 국민의힘 1.5%p 상승 (격차 12.6%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변동 없음, 국민의힘 0.7%p 하락 (격차 5.7%p)
지난 주 급등했던 호남, TK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주 다시 급락.
두 조사 모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 TK에서 국힘 지지도 하락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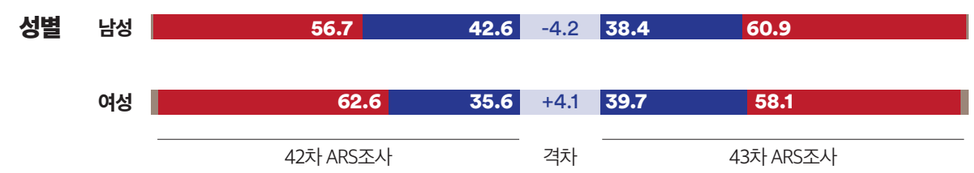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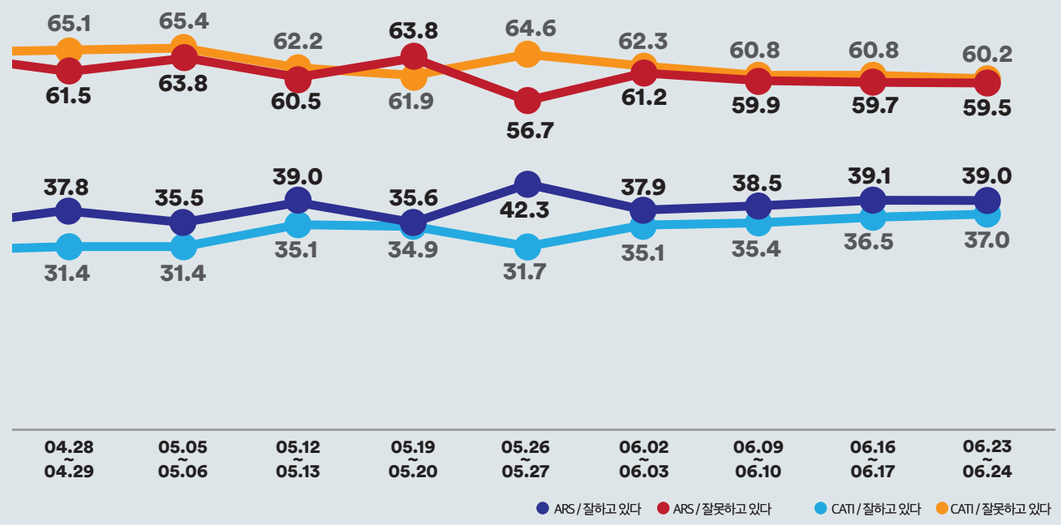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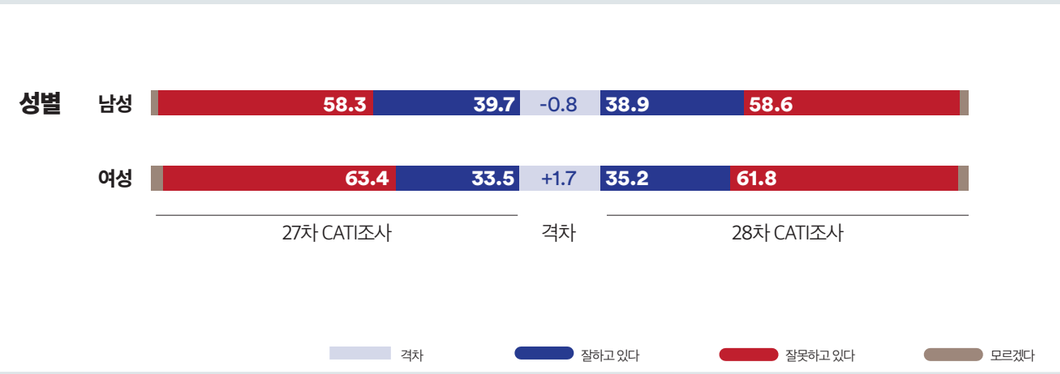


CATI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1%p 하락, 부정평가 0.2%p 하락(격차 20.5%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5%p 상승, 부정평가 0.6%p 하락(격차 23.2%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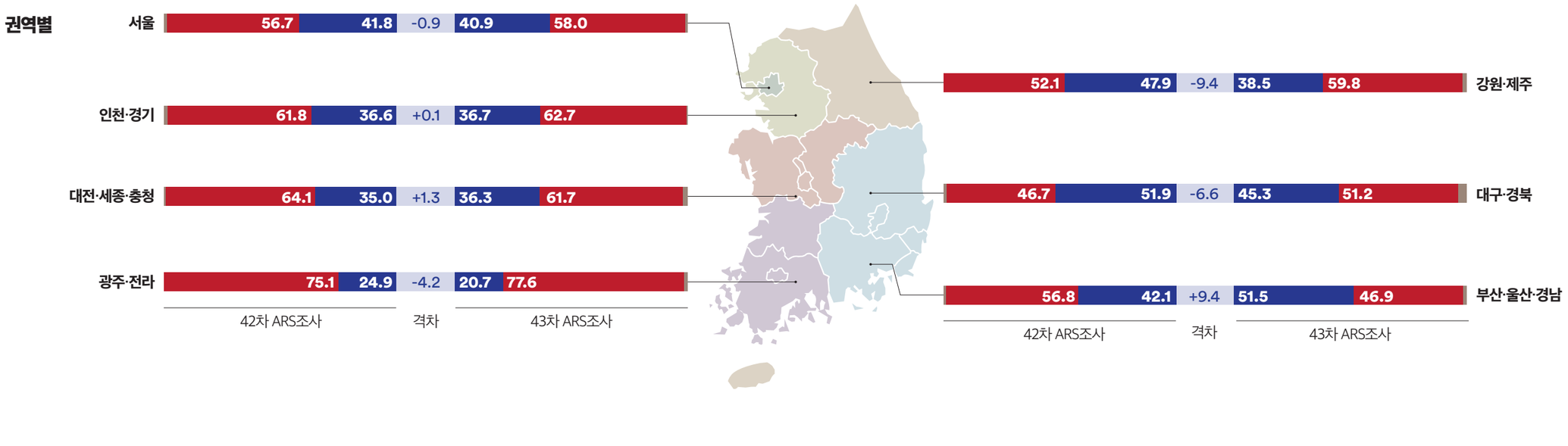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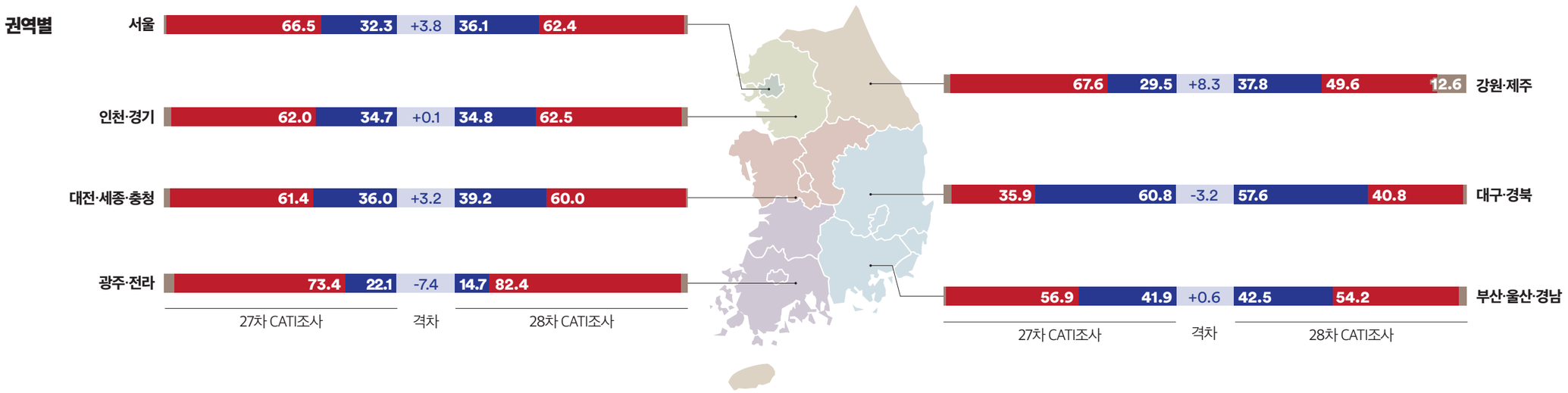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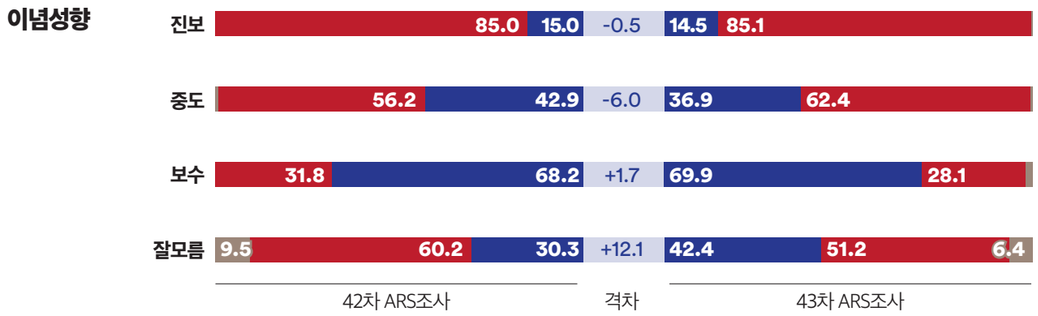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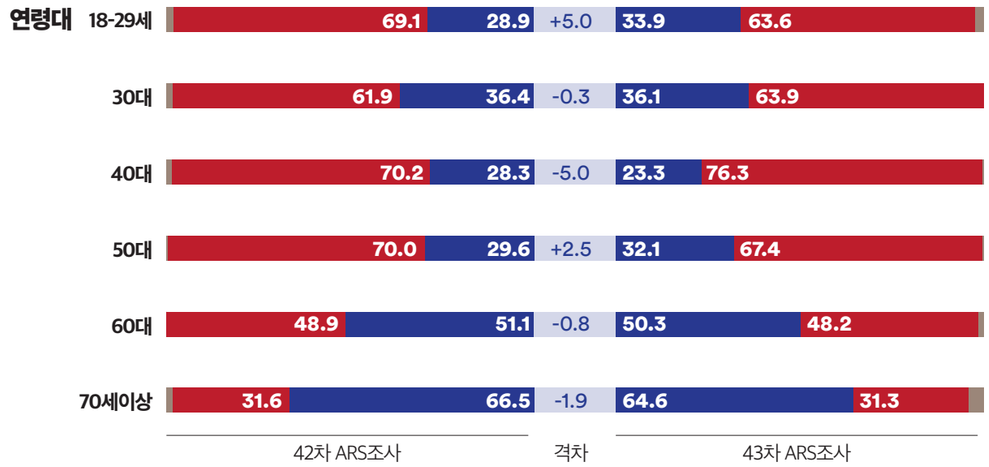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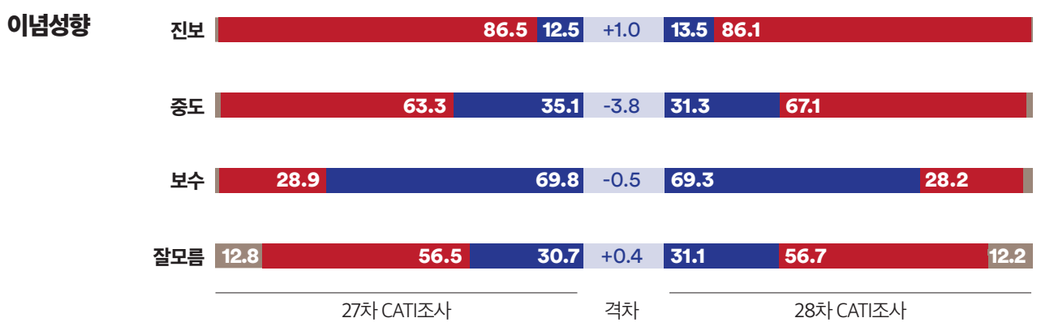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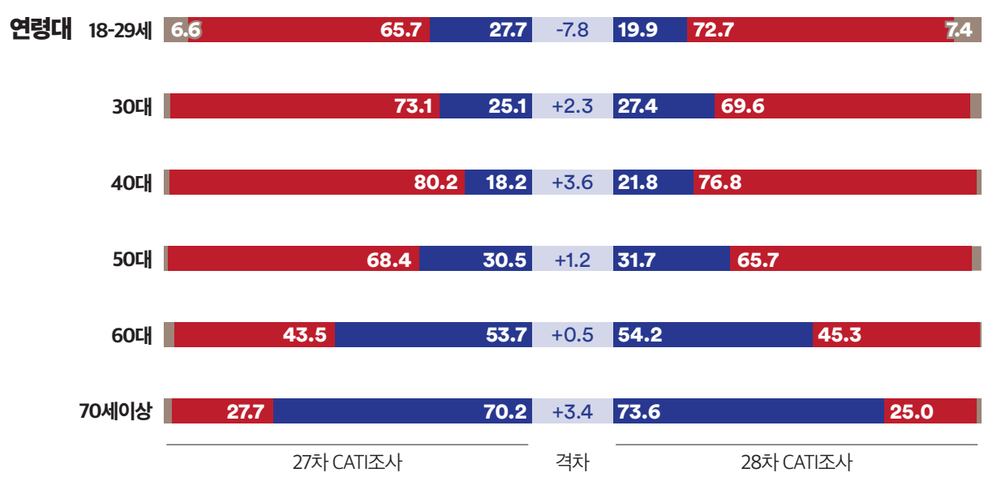
ARS





CATI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정치·사회 현안 심각도, 검찰 수사, 대중국 외교 방향

ARS & CATI / CATI

심각한 이슈들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윤정부의 검찰 수사
대중국 외교 방향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검찰에 대한 승부수라는 의견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민주당'이라고 공격하는 여권의 전략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이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언과 윤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년만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국 외교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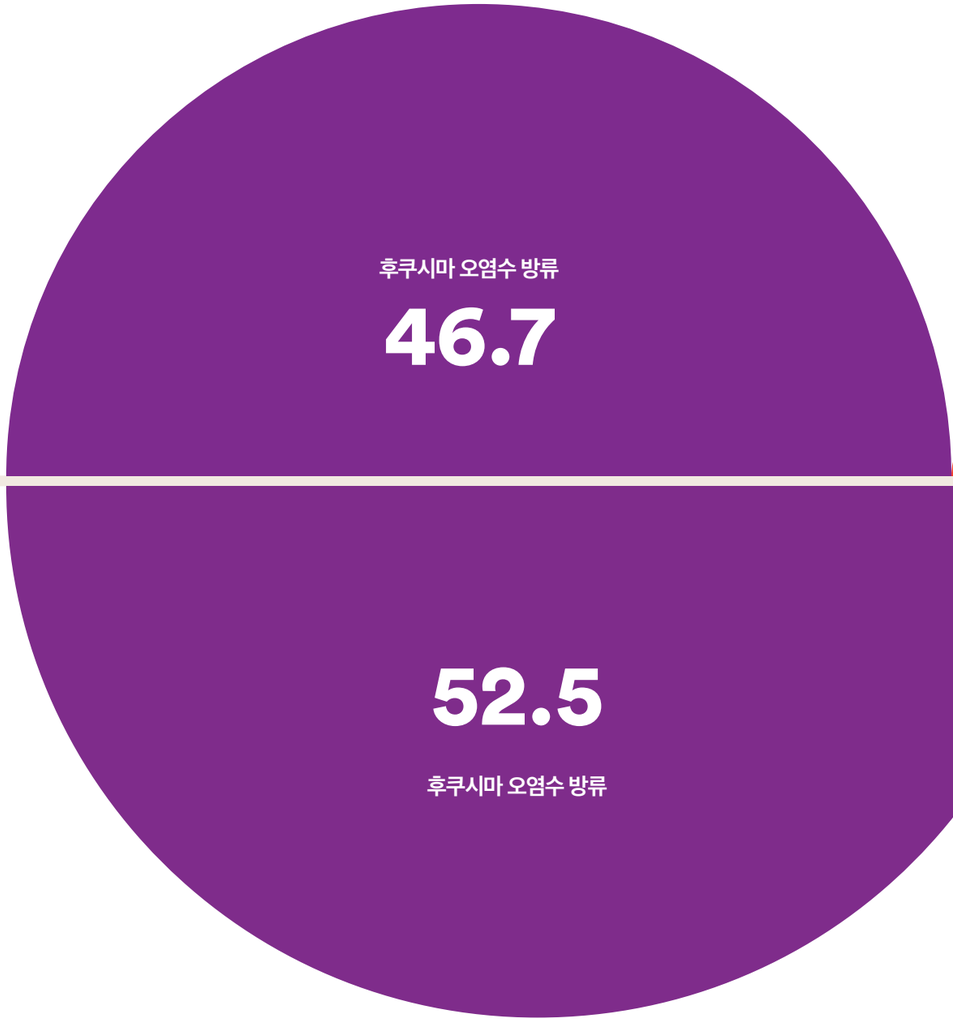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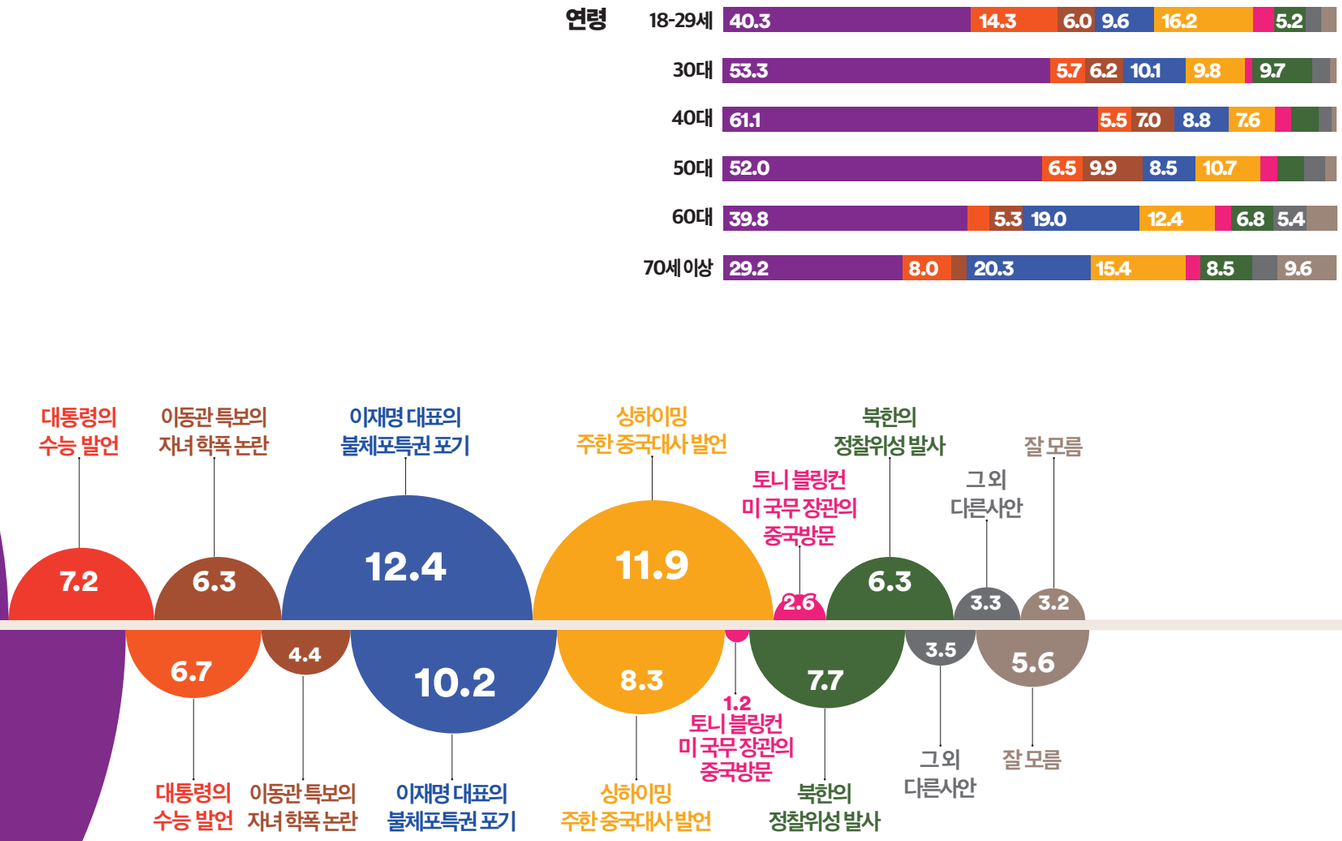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심각한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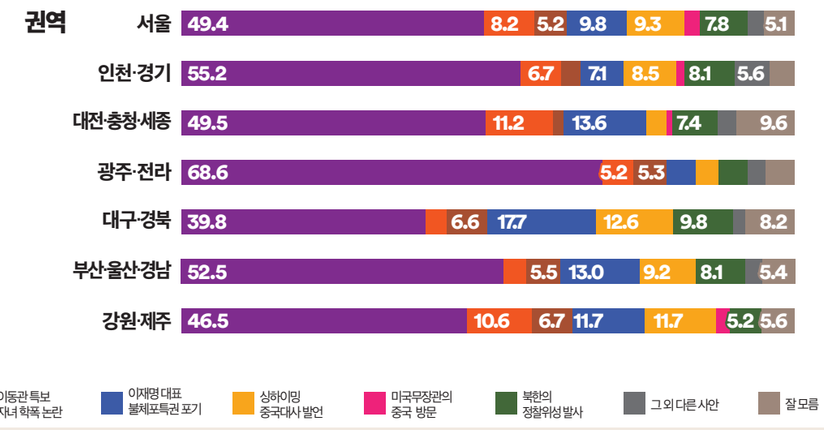
Q. 최근 정치·사회 현안 중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RS





CATI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응답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사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선택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ARS 조사의 보수층은 다른 응답을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선택
국민의힘 지지층 | ARS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28.0%)', CATI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27.7%)'
보수층 | ARS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23.8%)', CATI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8.8%)'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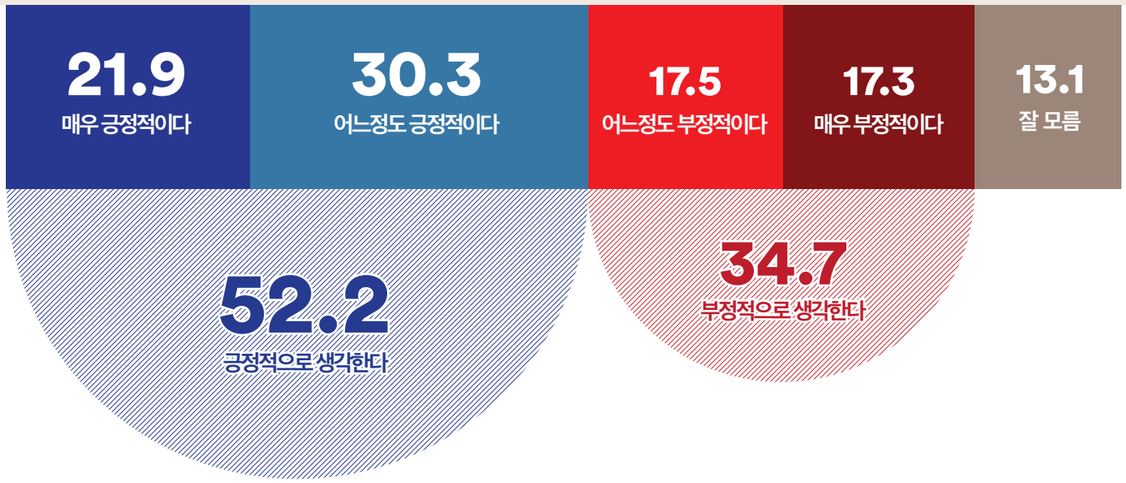
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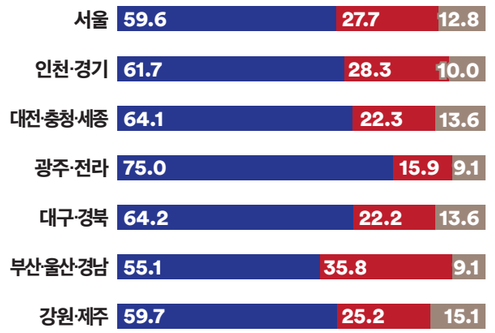
2023.6.19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당대표 발언 요약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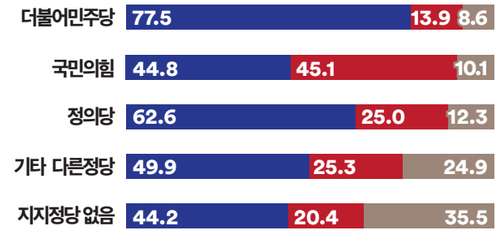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발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앞섬
‘긍정적’이란 응답은 ARS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 CATI 조사의 18~29세·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앞섬
두 조사의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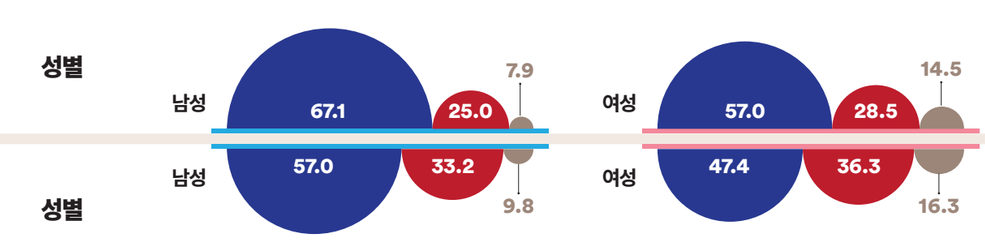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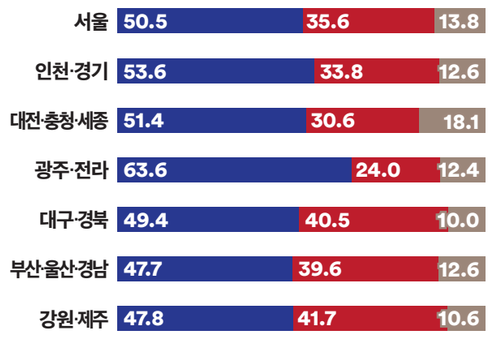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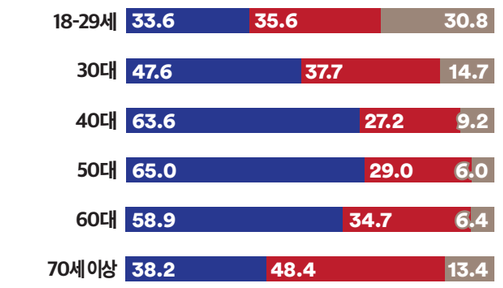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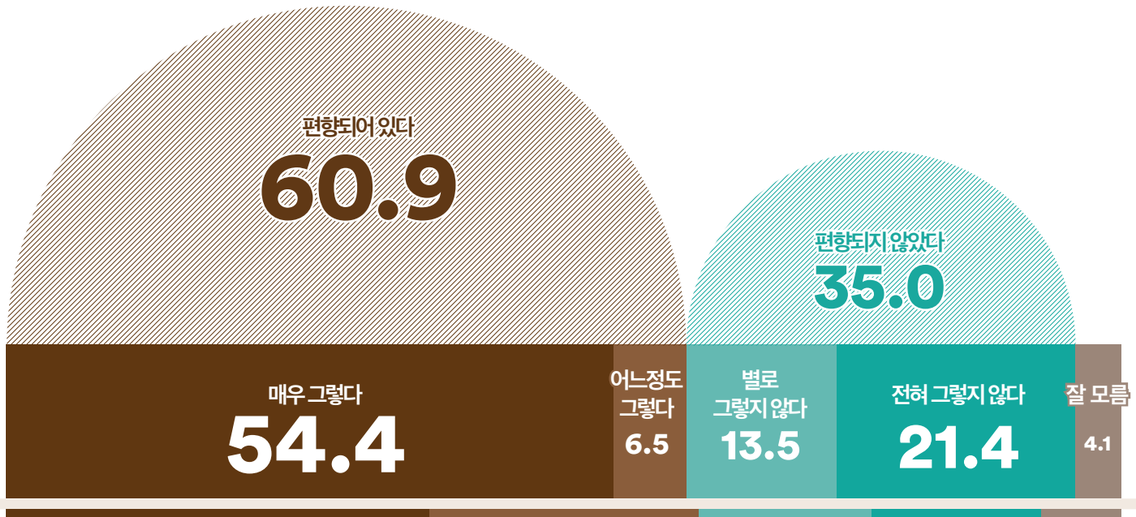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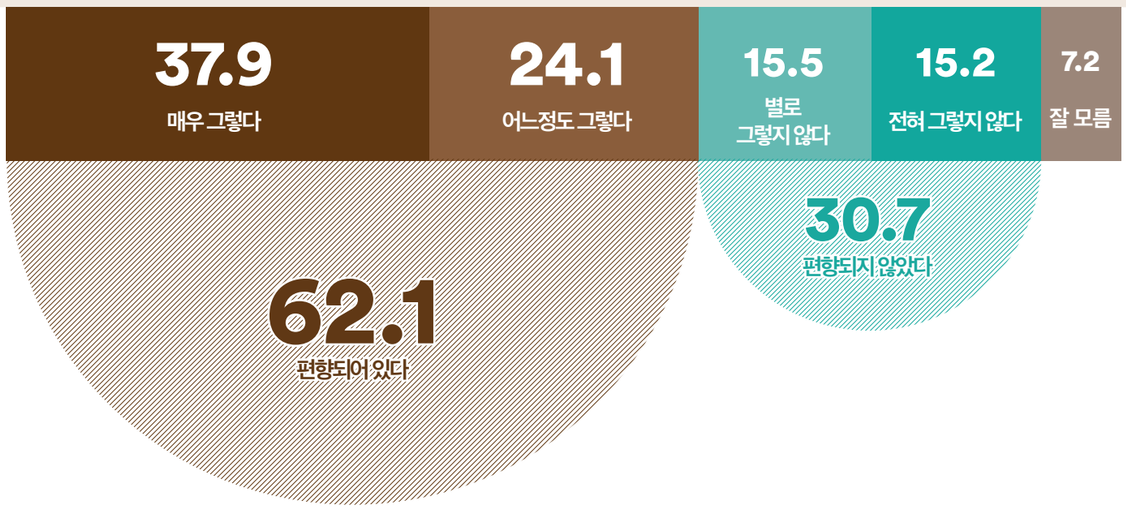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Q. 윤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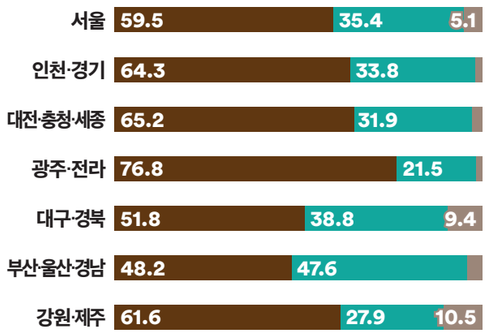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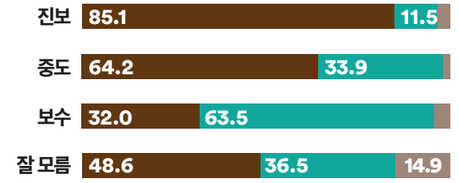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란 응답 우세
ARS 조사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응답에 매우 공감
'편향되어 있다'는 응답은 무당층·중도층 , 60대이하 응답층에서 앞섬
'편행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보수층, 70대 이상 응답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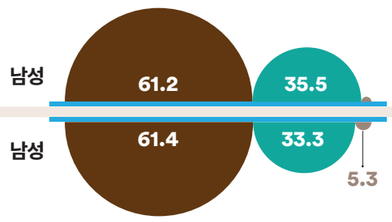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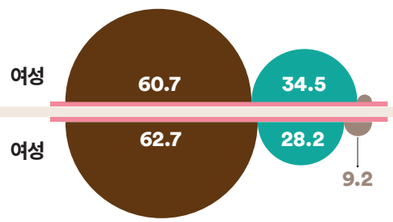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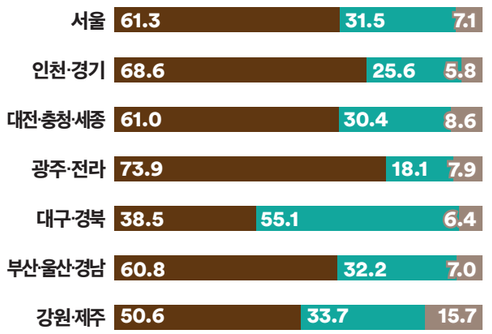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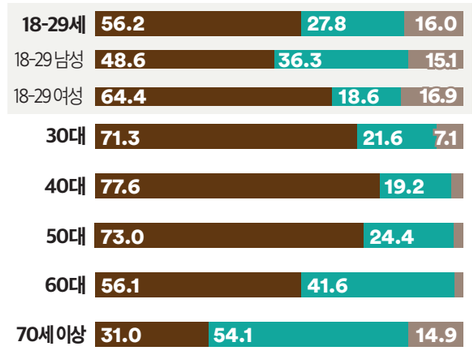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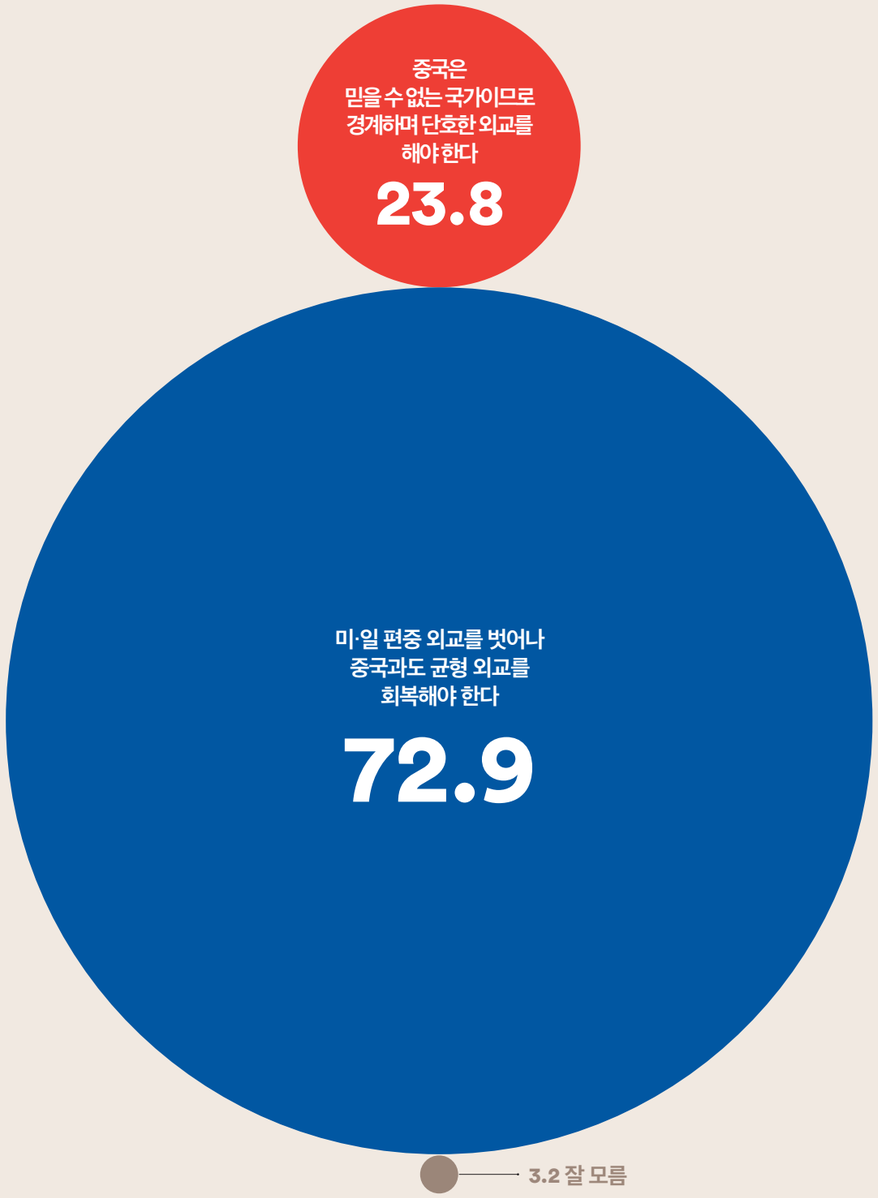


편향되어 있다 | 편향되지 않았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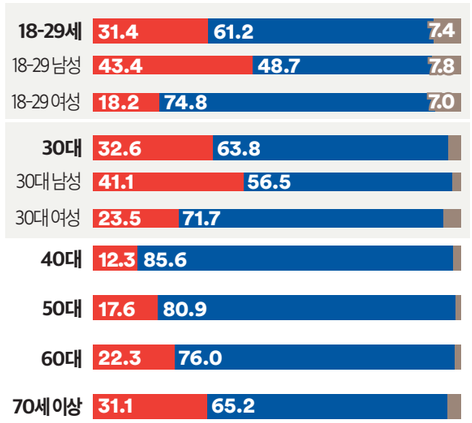
대중국 외교 방향

Q.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연내 미·중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바람직한 우리의 대중국 외교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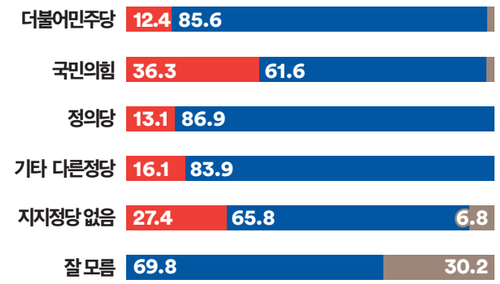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은 '미·일 편중 외교를 벗어나 중국과도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모든 권역·연령에서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응답이 앞섬
18~29세·30대 남성은 타 응답층과 달리 '단호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명중 6명이상은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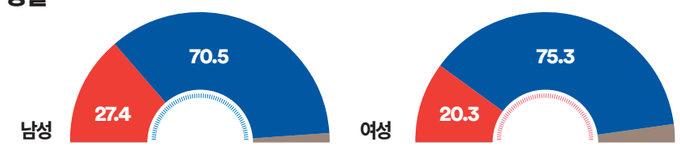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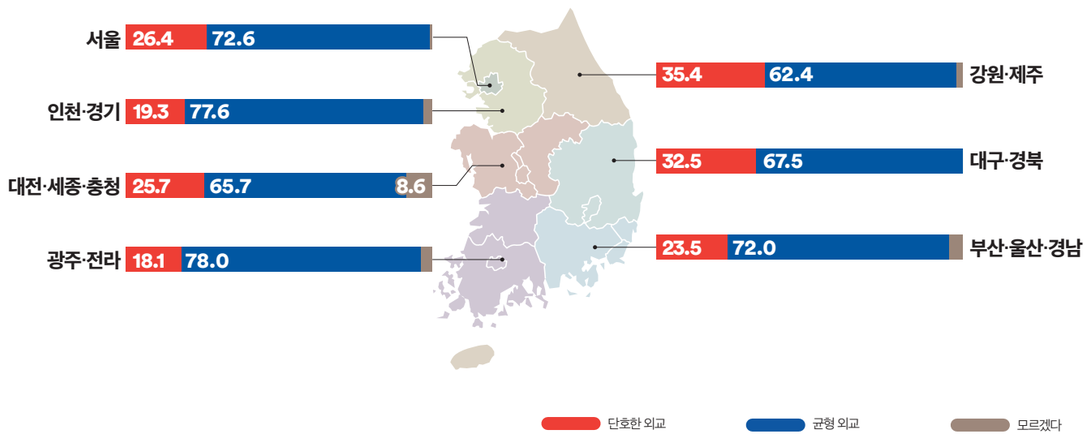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수능 이슈

ARS & CATI / CATI

대통령의 수능 발언

킬러 문항과 사교육비

일타 강사들의 초과 수익

수험생에 미칠 영향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능이 5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수능의 난이도와 교육 방향성,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교육부 대입 국장을 경질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능 정책과 사교육비 문제, 수험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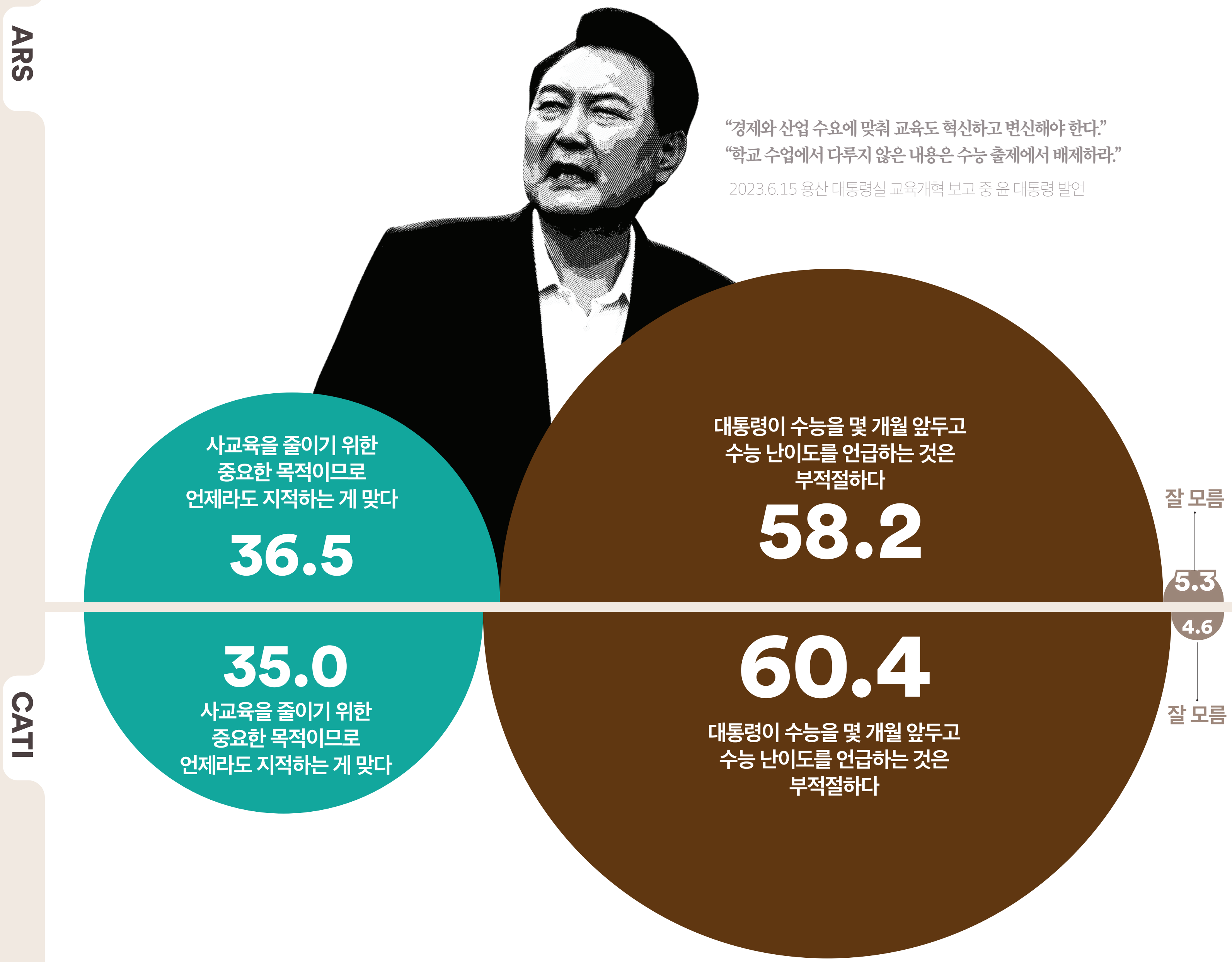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대통령의 수능 발언

Q. 수능 5개월 전 대통령이 직접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권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18-29세	30.2	64.1	5.7
30대	33.1	63.7	
40대	22.8	74.2	
50대	32.0	63.4	
60대	48.1	46.7	5.2
70세이상	57.4	31.5	11.1

정당지지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92.0	
국민의힘	81.4	12.9	5.7
정의당	39.4	51.1	9.6
기타다른정당	29.0	62.9	8.1
지지정당없음	21.1	69.9	9.0
잘 모름	19.2		80.8

성별 (ARS)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남성	37.5	57.8	
여성	35.5	58.6	6.0

성별 (CATI)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남성	37.0	58.1
여성	33.1	62.7

CATI

권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서울	33.1	63.4	
인천·경기	33.2	61.2	5.6
대전·충청·세종	34.3	60.0	5.7
광주·전라	16.5	78.9	
대구·경북	55.1	42.9	
부산·울산·경남	39.7	57.2	
강원·제주	39.3	51.1	9.6

연령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모르겠다
18-29세	23.4	71.2	5.4
18-29남성	31.1	61.8	7.1
18-29여성	15.0	81.4	
30대	33.8	60.0	6.2
40대	22.6	72.3	5.1
50대	31.4	67.6	
60대	46.5	50.6	
70세이상	57.2	34.8	8.0

적절하다 / 부적절하다 / 모르겠다

두 조사 모두 '현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

ARS 조사 | P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 앞섬(수도권, 호남, 강원·제주 우세)

CATI 조사 |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 앞섬(수도권, 충청, 호남, PK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절'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언제라도 지적할 수 있다' 우세

정치·사회 현안

킬러 문항과 사교육비

Q. 초고난도 문항, 일명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난이도 문제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난이도가 낮아지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다
27.6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 출제를 배제하겠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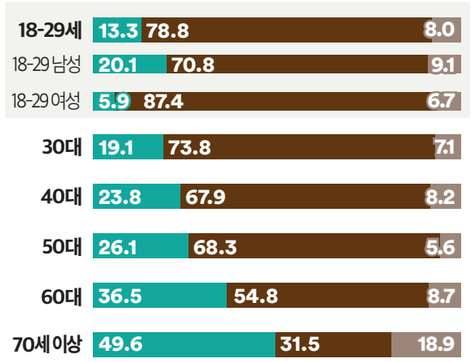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내용 발췌

63.3
과도한 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사교육 원인이므로 난이도 조절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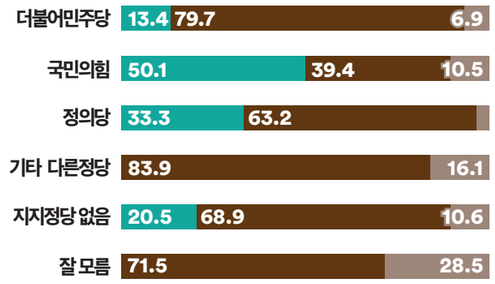
9.1 잘 모름

10명 중 6명 이상은 '과도한 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사교육 원인이므로 난이도 조절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
'난이도 조절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모든 권역에서 앞섬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 우세)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줄어들 것' 우세
18~29세 응답층의 경우,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란 응답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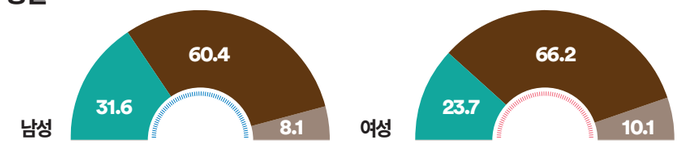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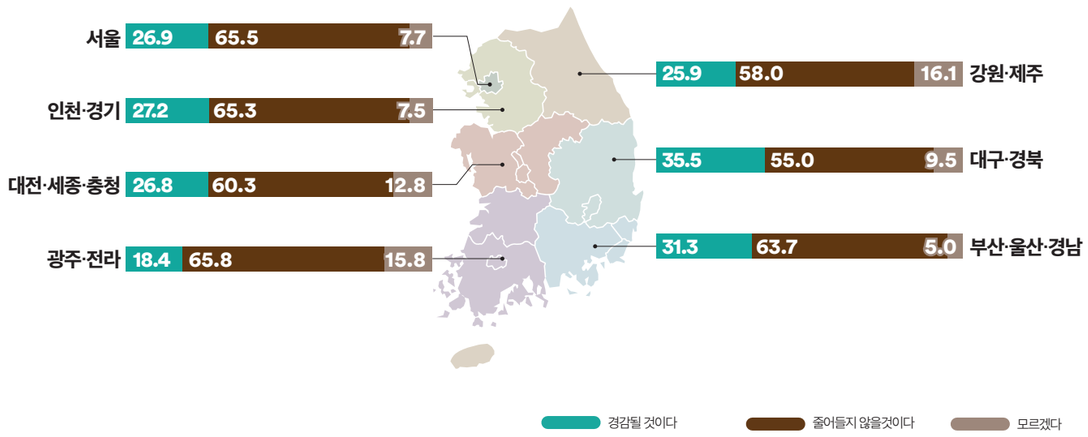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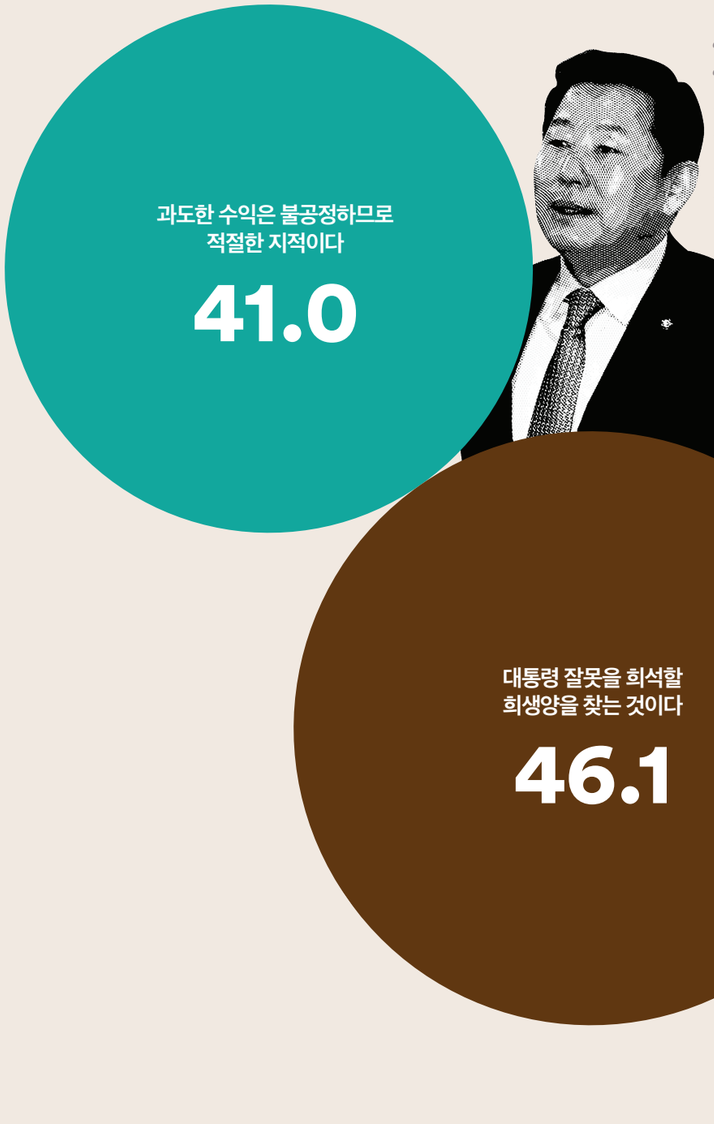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일타 강사들의 초과수익

Q. 일타 강사들이 초과수익을 벌어들이는 사회악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강사들의 100억·200억 연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라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입니다."

2023.6.21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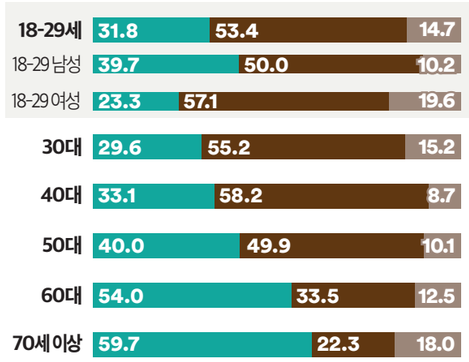
과도한 수익은 불공정하므로
적절한 지적이다
41.0

대통령 잘못을 희석할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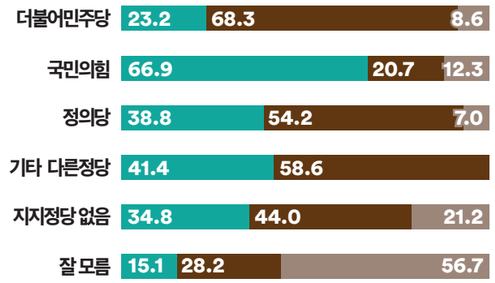
12.9 잘 모름

서울과 호남권에서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란 응답이 우세, TK권은 '적절한 지적'이 14.2%p 앞서고
경인, 충청, PK, 강원·제주 4개 권역은 5%p 내 응답 차이를 보임
무당층(적절한 지적 34.8% / 희생양을 찾는 것 44.0%), 중도층(적절한 지적 40.6% / 희생양을 찾는 것 47.7%)은
오차범위 내에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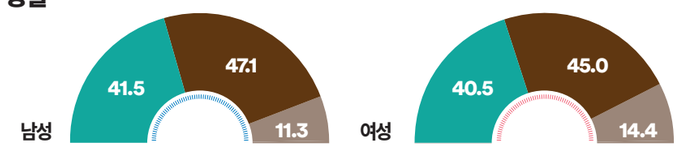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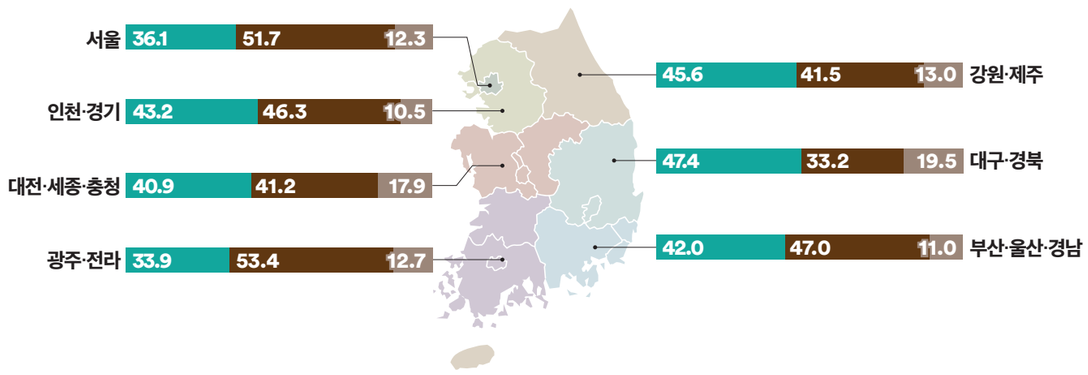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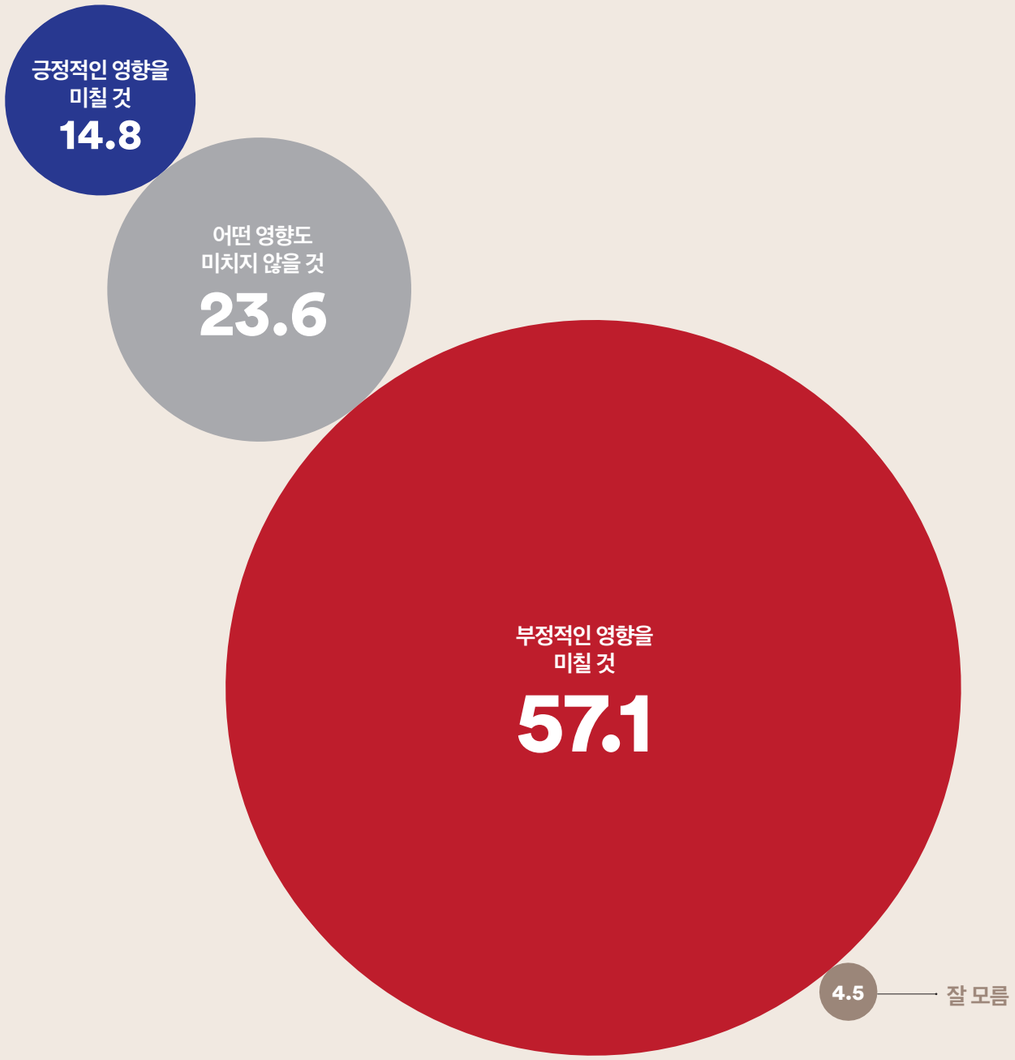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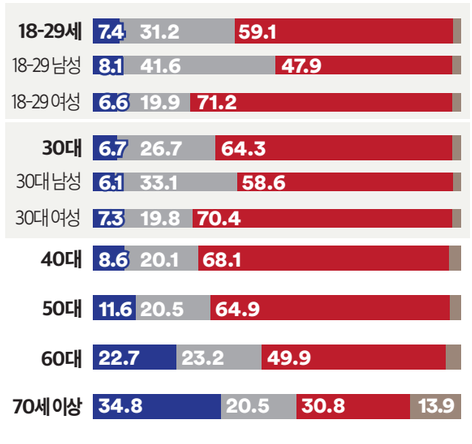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수험생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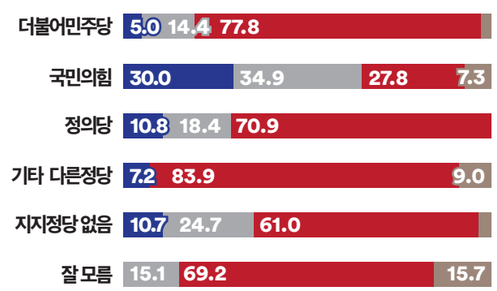
Q.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수능부터 출제방식을 바꾼다면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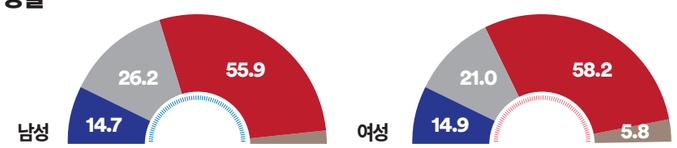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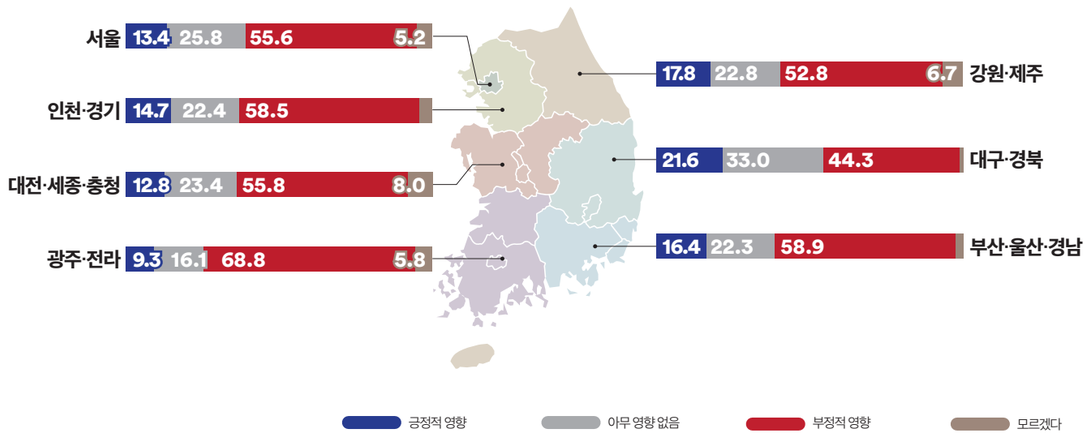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모든 권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우세('긍정영향+어떤 영향도 없을것' 보다 더 높은 수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우세
세부지표인 '연령대 by 성별' 변수에서 18~29세 여성층의 응답(71.2%) 비율이 타 변수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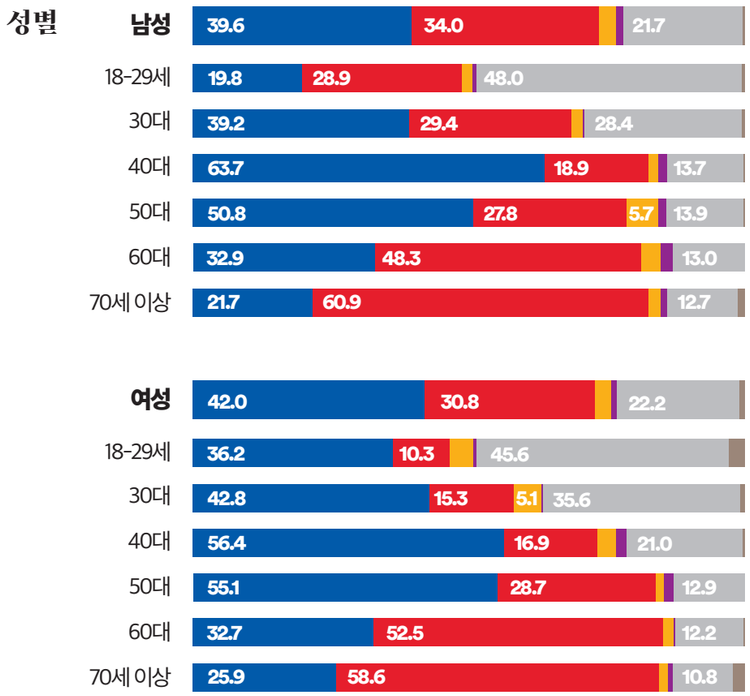
6월 종합 분석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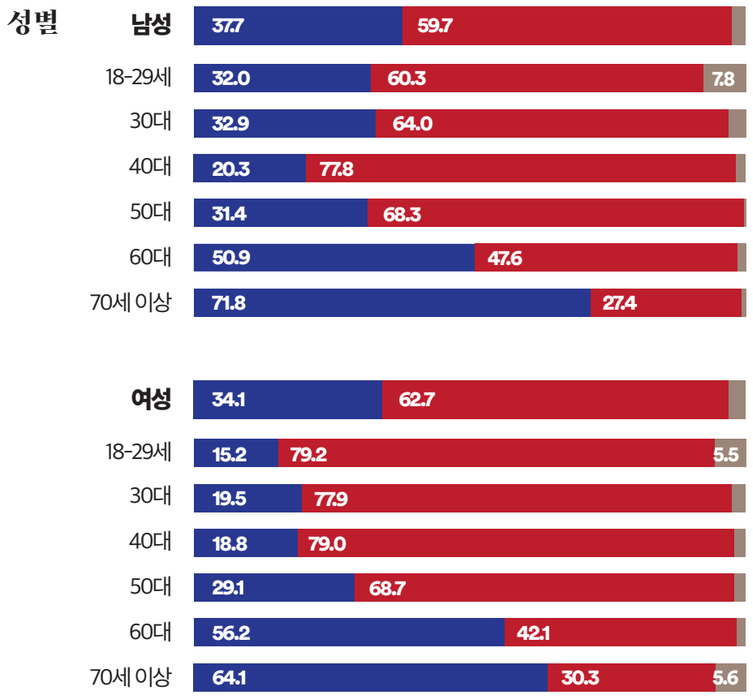
6월 통합 집계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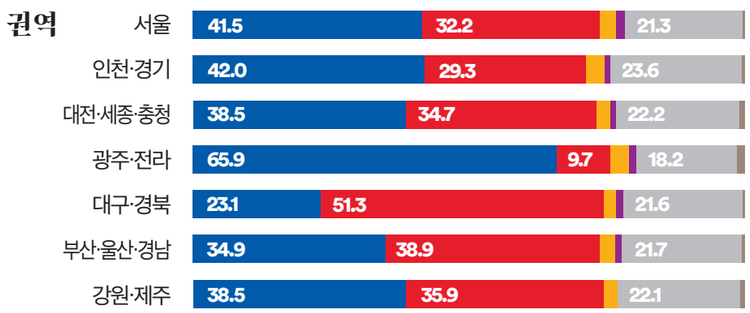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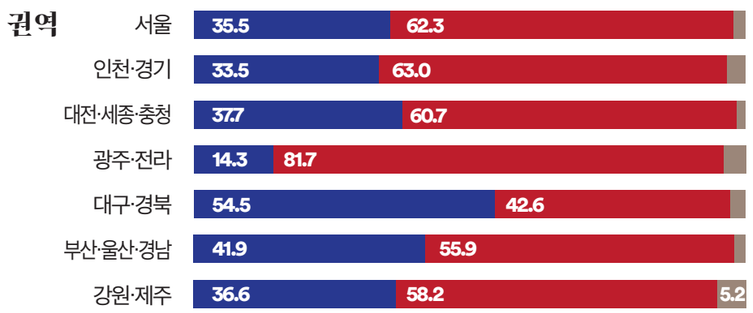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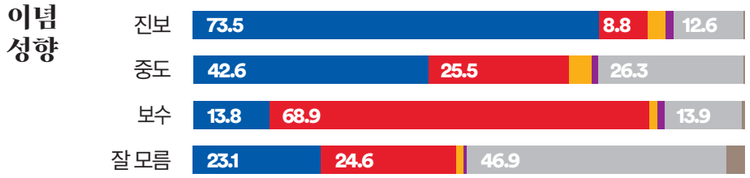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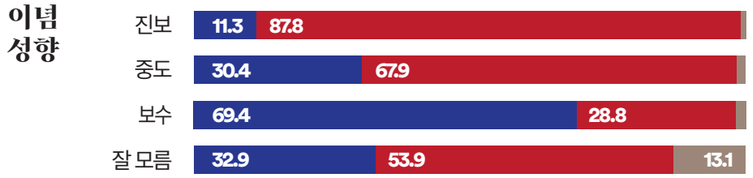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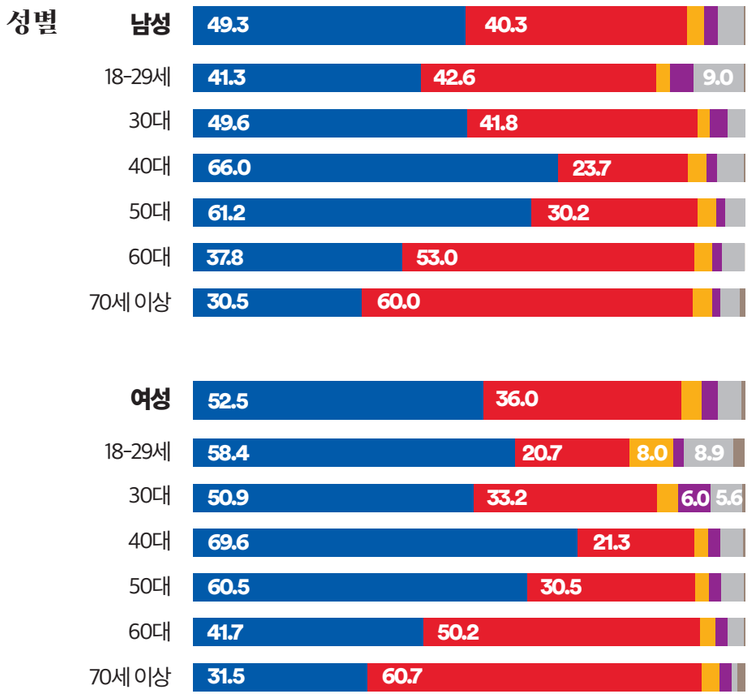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 정례조사 기준 *n=4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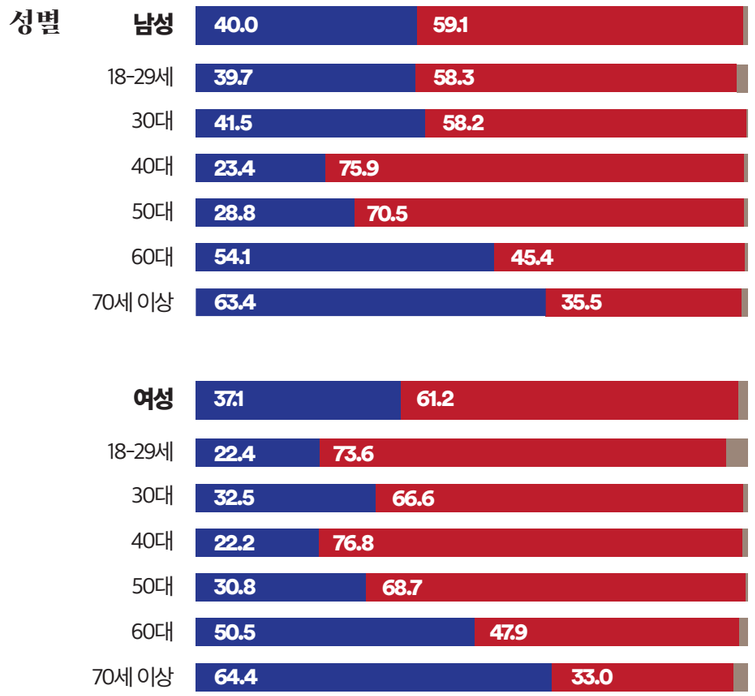
6월 통합 집계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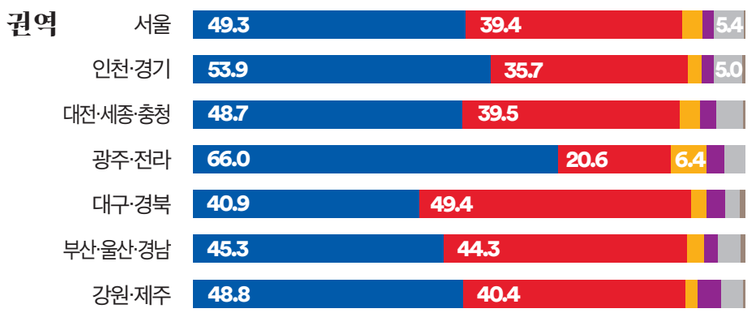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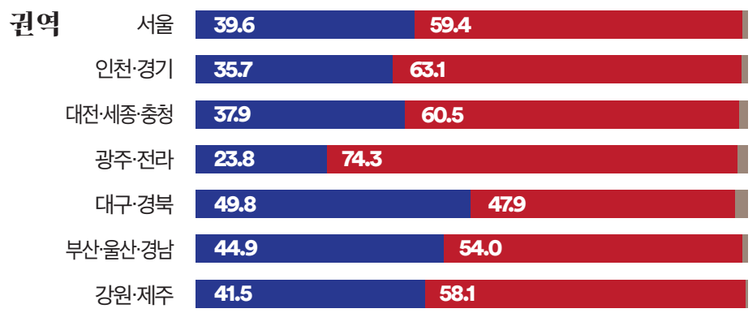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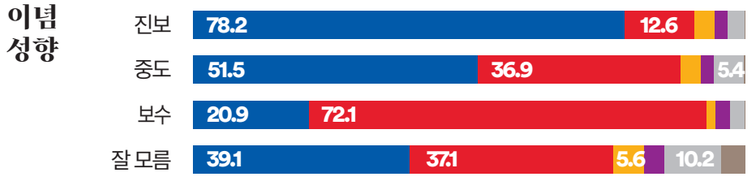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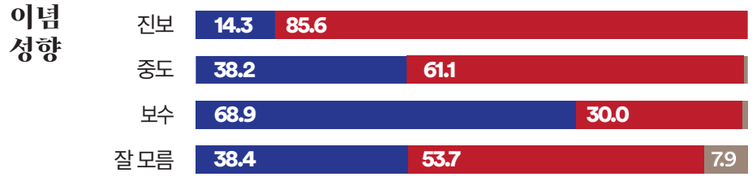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이념성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 정례조사 기준 *n=4022*

6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CATI / ARS

CATI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성별	남성	39.6	34.0			21.7	
	18-29세	19.8	28.9			48.0	
	30대	39.2	29.4			28.4	
	40대	63.7	18.9			13.7	
	50대	50.8	27.8	5.7		13.9	
	60대	32.9	48.3			13.0	
	70세 이상	21.7	60.9			12.7	
	여성	42.0	30.8			22.2	
	18-29세	36.2	10.3			45.6	
	30대	42.8	15.3	5.1		35.6	
	40대	56.4	16.9			21.0	
	50대	55.1	28.7			12.9	
	60대	32.7	52.5			12.2	
	70세 이상	25.9	58.6			10.8	
권역	서울	41.5	32.2			21.3	
	인천·경기	42.0	29.3			23.6	
	대전·세종·충청	38.5	34.7			22.2	
	광주·전라	65.9	9.7			18.2	
	대구·경북	23.1	51.3			21.6	
	부산·울산·경남	34.9	38.9			21.7	
	강원·제주	38.5	35.9			22.1	
이념성향	진보	73.5	8.8			12.6	
	중도	42.6	25.5			26.3	
	보수	13.8	68.9			13.9	
	잘 모름	23.1	24.6			46.9	

* 정례조사 기준 *n=4080*

ARS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성별	남성	49.3	40.3				
	18-29세	41.3	42.6			9.0	
	30대	49.6	41.8				
	40대	66.0	23.7				
	50대	61.2	30.2				
	60대	37.8	53.0				
	70세 이상	30.5	60.0				
	여성	52.5	36.0				
	18-29세	58.4	20.7	8.0		8.9	
	30대	50.9	33.2		6.0	5.6	
	40대	69.6	21.3				
	50대	60.5	30.5				
	60대	41.7	50.2				
	70세 이상	31.5	60.7				
권역	서울	49.3	39.4			5.4	
	인천·경기	53.9	35.7			5.0	
	대전·세종·충청	48.7	39.5				
	광주·전라	66.0	20.6	6.4			
	대구·경북	40.9	49.4				
	부산·울산·경남	45.3	44.3				
	강원·제주	48.8	40.4				
이념성향	진보	78.2	12.6				
	중도	51.5	36.9			5.4	
	보수	20.9	72.1				
	잘 모름	39.1	37.1	5.6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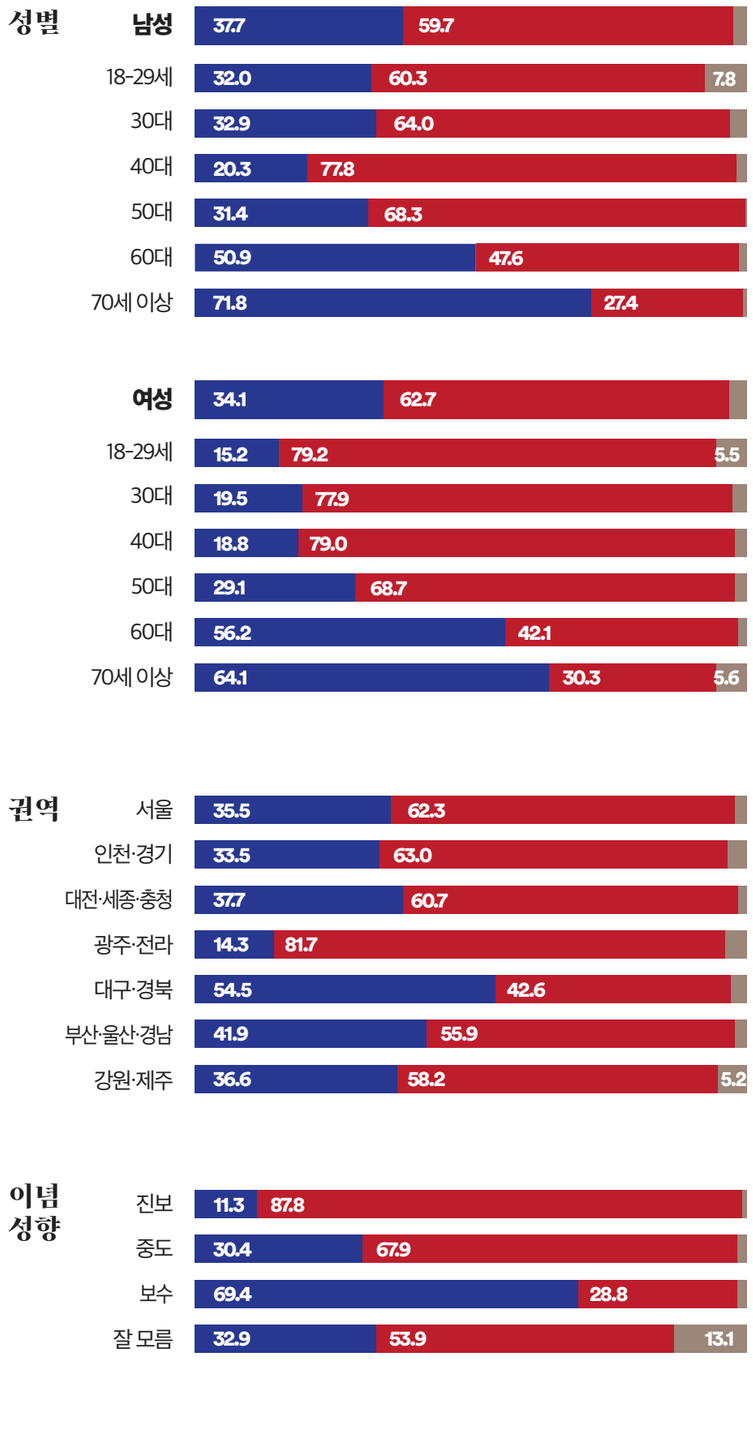
n=4022

6월 통합 집계
국정지지도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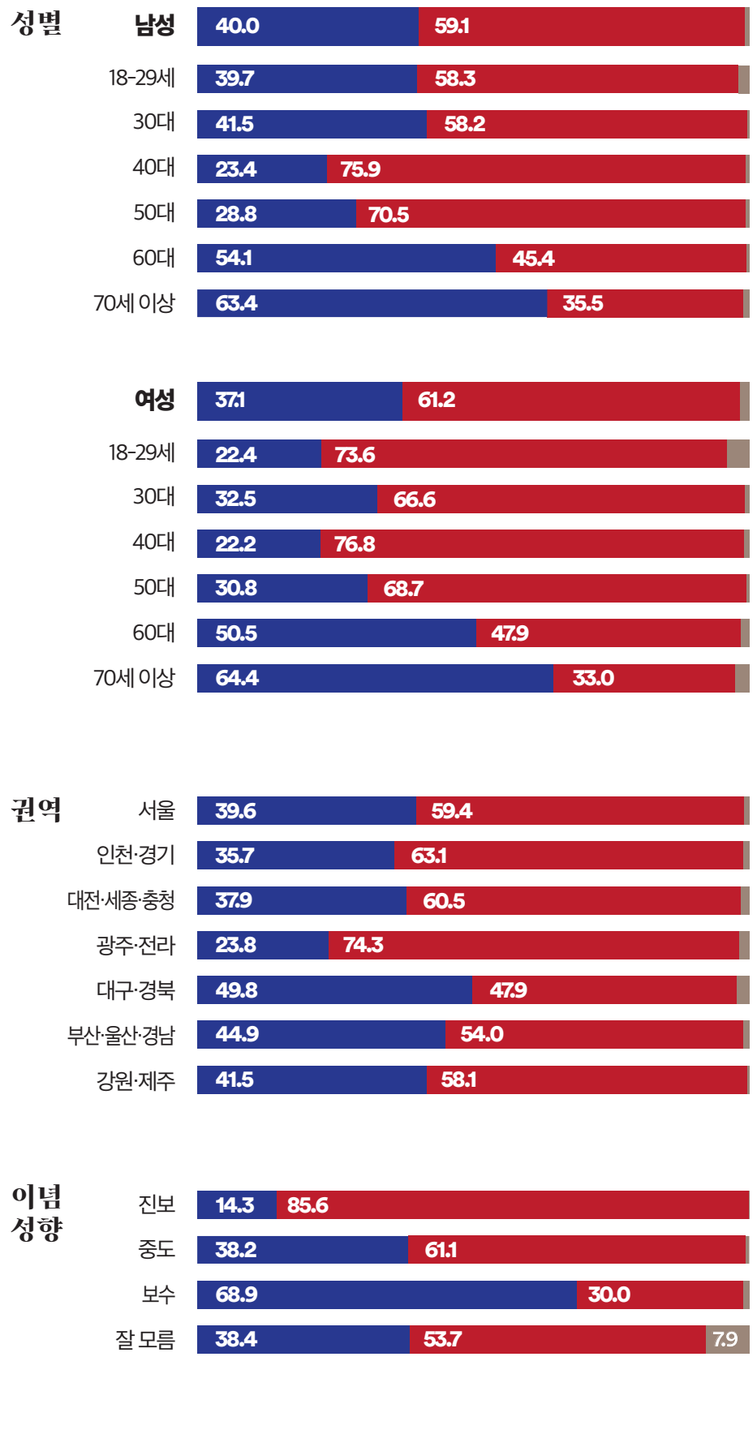
잘함
잘 못함
잘 모름

CATI



* 정례조사 기준 *n=4080*

ARS



n=4022

REPORT #202306_05

여론조사꽃 제4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